



사회로 통하는 지름길 제대군인 지원센터

- 취·창업지원** 1:1 전담상담사 배정 맞춤형 상담 서비스, 전직지원금 지원
채용정보 제공 및 취업알선, 이력서·면접 클리닉 등
- 워크숍** 취업역량강화, 변화관리, 특강, 창업워크숍 등
- 직업훈련** 위탁교육, 직업능력개발교육비 지원, 귀농귀촌 프로그램 등
- 사이버 교육** 자격증 취득 관련 등 취·창업에 필요한 강좌 제공
- 멘토링상담** 성공 제대군인 멘토 온·오프라인 실전 경험 전수



제대군인지원센터로 오십시오.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라 5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 준사관, 부사관으로 전역했다면 누구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www.vnet.go.kr) 회원가입 필수

경기북부 제대군인지원센터
경기 의정부시 시민로 80, 1103호
(의정부동, 센트럴타워)

인천 제대군인지원센터
인천 미추홀구 석정로 239, 1층
(도화동, 정부인천지방합동청사)

경기남부 제대군인지원센터
경기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8, 별관 2층
(영화동, 경기남부보훈지청)

광주 제대군인지원센터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 1층
(오룡동,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서울 제대군인지원센터
서울 서초구 방배로 73, 3층
(방배동, 양지빌딩)

강원 제대군인지원센터
강원 춘천시 중앙로 172, 6층
(근화동)

대전 제대군인지원센터
대전 서구 한밭대로 713, 5층
(월평동, 대전지방보훈청)

대구 제대군인지원센터
대구 달서구 화암로 301, 저층부 3층
(대곡동,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부산 제대군인지원센터
부산 중구 중앙대로148번길 13, 4층
(중앙동4가, 부산지방보훈청)

경남 제대군인지원센터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305, 2층
(서성동, KT서성빌딩)

군인친구
1666-9279
전국 10개 센터 대표번호

리:스펙 제대군인 2023 January Vol.203

리:스펙 제대군인

01 Vol.203
2023 January



QR코드를 통해 리:스펙 제대군인 웹진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혁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힘

생각한 스폰

혁신은 디테일로부터
시작된다
애플 & 테슬라

슬기로운 직장생활

알아두면 쓸모 있는
2023 달라지는 제도

존경하는 제대군인 여러분, 그리고 <리;스펙 제대군인> 애독자 여러분.

2023년 계묘년(癸卯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고,
만복(萬福)이 깃드시길 바랍니다.

국가안보의 최일선에서 불철주야 헌신하신 제대군인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영웅입니다. 오늘 날 대한민국이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자 세계가 부러워하는 문화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은 흔들림 없는 국가안보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늘, 땅, 바다와 이역만리 타국에서 성실히 군복무를 수행한 여러분이 계셨기에 가능했습니다. 제대군인 여러분께 각별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내실 있는 제대군인 정책으로 여러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국가보훈처는 국정과제인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을 실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제복근무자와 청년의무복무자, 미래세대 대상으로 정책의 외연을 넓혀 보훈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정립하였고, 제복의 영웅들을 존경하는 '보훈문화' 확산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특히, 군 전역 후 구직활동을 통해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제대군인분들께 드리는 '전직지원금'을 2008년 제도 도입 이후 최초로 대폭 인상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와 협업을 통해 직업상담사 취업서비스 역량을 강화하였고, 브이넷(V-net) 기능도 사용이 좀 더 쉽고 편리하게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제대군인 일자리 발굴을 위해 1사1제대군인 채용 사업을 추진하고,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와 제대군인 일자리 창출 유공기업 표창 등을 통해, 경기침체로 인한 열악한 고용환경에도 불구하고 7천여 명의 제대군인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2023년 국가보훈처는 제대군인들의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을 보다 강화하고 제대군인에 대한 사회적 존중과 예우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직지원금'의 추가적 인상을 추진하고, 기업체와 유기적 협력을 통해 제대군인에게 적합한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겠습니다. 제대군인들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취업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훈련 프로그램도 확충하고, 국방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의 데이터 연계를 통해 빅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2023년은 6·25전쟁 정전 7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정전 70년 계기 다양한 기념사업을 통해 호국영웅들의 숭고한 헌신에 존경과 감사를 전하고, 이를 통해 제복의 영웅들을 존경하는 '보훈문화'가 우리 사회에 두텁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국가보훈정책에 많은 관심과 참여,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지혜가 풍요롭다는 검은토끼의 해, 계묘년입니다. 제대군인과 애독자 여러분 모두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을 성취하는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새해 복(福)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3. 1. 2.
국가보훈처장






리:스펙 제대군인


01 Vol.203
2023 January

혁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힘

통권 203호
발행일 2023년 1월 2일
발행처 국가보훈처
발행인 박민식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기획 국가보훈처 제대군인국
제대군인일자리과(044-202-5731)
기획·디자인·인쇄 동아문화사(053-252-9060)

 @mpvakorea.korea
 @hun2day.korea
 @mpvakorea.korea
 mpvalove.kr
 @bohun_story.korea

 QR코드를 통해 <리:스펙 제대군인> 웹진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리:스펙 제대군인>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제대군인지원센터 홈페이지(www.vnet.go.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08

Find 業 VISION

02
신년사
___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06
생각 한 스펀
혁신은 디테일로부터 시작된다
___ 한재동 브랜드 전문 에디터/마케터

08
라이프 체인저
불광불급(不狂不及)
미치지 않으면 미칠 수 없다
___ 박성우 예비역 육군 대위

12
함께 그려본 내일
임대형 민자사업 분야의 미래를 선도하다
___ (주)HDS자산관리

16
이런 직업 처음이지?
스마트한 탄소중립
지구를 위해 한 걸음 앞선 사람들
___ 스마트 에코



12

Find 業 LIFE

18
직업처방전
견주에게는 신뢰를 반려견에게는 사랑을
___ 최지운 예비역 육군 중사

22
기업이 알고 싶다
달을 따다 줄까? UFO를 태워줄까?
한국판 베네치아를 만들어가다
___ 나루

24
굿 JOB 굿 LIFE
나라를 지키는 군인에서,
농촌을 지키는 청년 농부로
___ 이건희 예비역 육군 중사

26
슬기로운 직장생활
알아두면 쓸모 있는 2023 달라지는 제도

28
성공 길라잡이
2023년도 제대군인 주택 우선공급 및 대부지원 계획



18

Find 業 HAPPINESS

30
금쪽상담소
MBTI, 우리 아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___ 조수연 (주)호시담 대표, 상담학 박사

32
접속! 직업월드
칼럼니스트로, CF감독으로 출구없는 매력을 뽐내다
___ 배우 손석구

34
차이나는 클라쓰
인생 2막은 지금부터!
취업준비, 애플리케이션으로 시작하자

36
힐링온더트립
2023년 희망찬 출발!
동해바다 문무대왕릉 해돋이와 경주여행

40
나의 군대일지
동계훈련, 이게 그 핫팩이야?
___ 김기환 예비역 육군 소령

42
해피투게더
행복한 명절을 위한 스트레칭 솔루션

#애플 #테슬라

혁신은 디테일로부터 창출된다

글 한재동 브랜드 전문 에디터 / 마케터



기업의 신년사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를 찾다보면, '혁신'이 정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급격히 변화하는 디지털 시대로 접어들면서 61년이던 기업의 평균 수명이, 2027년에는 12년 수준으로 짧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고요. 이제 기업 생존을 위해서는 혁신은 필수조건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기업의 성공적인 혁신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혁신에 성공한 기업의 사례를 연구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기업 혁신의 교과서라 할 수 있는 애플과 테슬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애플 로고 - 출처 unsplash



아이폰 - 출처 unsplash

Apple

혁신이라는 단어가 가장 잘 어울리는 기업, 애플(Apple)

애플의 시작은 창고였습니다. 1976년 스티브 잡스와 스티브 워즈니악은 직접 부품을 모아 만든 첫 번째 제품 '애플 I'을 만들었죠. 이후 세계적인 컴퓨터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야심차게 개발한 '애플 III'와 '애플 리사'의 실패로 창업자 잡스가 해임돼요. 전문경영인 체제가 되자 가능성을 보였던 '매킨토시'의 라인업을 다양화하고, 세계 최초의 PDA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그러나 컴퓨터 시장은 MS의 'Windows95' 출시로 IBM이 독점하게 되고, 새로운 제품도 실패해요. 결국 애플의 경영상태는 최악으로 치달아 인수할 기업조차 찾지 못하게 됩니다.

이때 구원투수로 잡스가 돌아와요. 그리고 혁신을 시작합니다. 매킨토시의 다양한 라인업을 정리하고 디자인이 우수한 '아이맥 G3'를 개발합니다. 사람들은 다시 환호를 보내기 시작했고, 이윽고 '아이팟(iPod)'이 등장합니다. 미니멀하고 모던한 디자인에 직관적인 조작법은 센세이션했어요. 아이팟 나노, 아이팟 셔플이 연이어 히트합니다. 그리고 2007년, 애플은 인류사에 남을 만한 히트작을 발표해요. 바로 아이폰(iPhone)입니다. 애플은 고객 경험을 기반으로 제품 라인업을 확장했습니다.



애플 생태계 - 출처 unsplash

연달아 아이패드, 에어팟, 애플워치가 출시되었고, 서로 호환되며 '애플 생태계'라고 불려요. 스티브 잡스(1955 ~ 2011)는 애플의 시작이자, 애플의 정신을 만들었습니다. 애플의 성공 요인을 고객 관점에서 설계된 직관적인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아이폰 출시 당시 다른 스마트폰들과 달리 미니멀하고 사용하기 쉬운 디자인으로 완성된 것도 완벽주의자였던 잡스가 디테일을 놓치지 않았기에 가능했어요. 그리고 그 디테일이 세계 최고의 기업 애플을 만들었습니다.

Tesla

전기 자동차의 애플이라고 불리는 테슬라(Tesla)

애플에 스티브 잡스가 있었다면 테슬라에는 일론 머스크라는 걸출한 창업자가 있습니다. 천재적인 인사이트와 동시에 기행을 벌이는 측면에서 영화 '아이언맨'의 주인공 토니 스타크를 연상시켜요. 기업에서 스타 CEO의 존재는 장단점이 명확한데, 테슬라의 경우에는 마케팅면에서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른 전기차들이 실용적이고 친환경적인 면을 강조하기 위해 작고 투박했던 것



테슬라 - 출처 연합뉴스

에 비해, 테슬라는 혁신적인 '드림카' 전략으로 전기차 시장에 진입합니다. 그렇게 완성된 테슬라의 첫 모델 '로드스터'(2009년)는 10만 달러가 넘는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생산한 1,200대가 모두 완판됩니다. 로드스터의 성공으로 세상의 주목을 받은 테슬라는 이후 프리미엄 세단 '모델S'(2012년), SUV '모델X'(2015년), 보급형 모델 '모델3'(2017년)과 '모델Y'(2020년)를 모두 성공시키며 전기차 판매 세계 1위 기업이 됩니다. 테슬라가 혁신에 성공해서 시장을 석권할 수 있었던 이유는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기존 전기차와 달리 미적 요소를 강조한 디자인과 주행 성능을 내세운 마케팅에 주력한 것. 둘째는 전기차도 스마트폰처럼 간단하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기술을 업계 최초로 도입한 것. 셋째 구매 결정 단계의 고객 경험을 위해 애플 스토어의 전략을 벤치마킹하고 100% 온라인 판매로 전환한 것. 넷째 운행부터 충전까지 모든 디테일한 부분에서 고객의 관점에서 설계된 직관적인 UX입니다. 탄탄한 기술력과 디테일한 마케팅 전략을 바탕으로 혁신에 성공한 테슬라는 소비자에게 전기차의 애플 같은 브랜드로 포지셔닝되었고,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보여드린 두 기업 모두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CEO가 고객의 디테일을 챙기는 것에서부터 혁신을 만들었다는 공통점이 있네요. 어쩌면 그게 바로 성공적인 기업 혁신의 비밀이 아닐까요? ☞



불광불급(不狂不及) 미치지 않으면 미칠 수 없다

‘혁신’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 우리는 ‘혁신’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먼저 변화와 새로움을 떠올리지만 여기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게 혁신은 ‘존버’에서 나온다고 외치는 사나이가 있다. 무엇인가를 바꾸고 변화시키는 것보다 눈앞에 주어진 일에 노력과 끈기로 버티는 것. 그 치열함 속에서 미래를 꿈꾸는 것이 혁신이라 말하는 쇼핑몰 창업강사 ‘더드림’의 박성우 대표를 만나 보았다.

글 양일석 사진 오철민

박성우
예비역
육군 대위

Park Sungwoo



하얀 눈이 소복이 쌓인 전라북도 소상공인 희망센터에서 주차장에 도착하자 쇼핑물 창업강사인 박성우 씨가 환한 웃음을 띠며 다가와 인사를 하며 악수를 건넨다.

“안녕하십니까? 쇼핑물 판매 셀러이자 창업강의를 하고 있는 더드림 대표 박성우입니다.”

그가 안내한 곳은 책상 두 개에 컴퓨터 두 대가 놓여 있는 단출한 사무실이었다.

쇼핑물 창업강사라는 현재의 일을 하게 된 계기가 궁금하여 물어보았다.

“전역 후 여러 직업도 가져보고 실패도 많이 하며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없이 사업할 수 있는 아이템을 고민하고 찾다가 무재고 위탁판매 쇼핑물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초기투자 없이 어디서든 컴퓨터와 책상만 한 대 있으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누구나 사업을 시작할 수 있지만 누구나 돈을 벌지는 못할 터인데 아무리 보아도 박성우 대표는 약삭빠르거나 장사수완이 있어 보이지는 않아서 물어보았더니 자신의 장점은 남들보다 뛰어난 노력과 끈기, 그리고 꾸준함이라고 답하며 한 가지 사례를 들어준다.

“제가 작년에 대한민국에서 물건을 제일 잘 판다는 약 7만 7천 셀러들과 매출 경쟁에서 2등을 했고 상금 1,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상금을 받게 해준 효자상품은 할머니들이 쓰고 다니는 털모자였는데 남들과 달리 제품발송부터 이동, 도착까지 꼼꼼히 확인하고 감사문자를 발송했습니다. 또 불량제품에 대한 반품과 교환까지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해드렸더니 착한 쇼핑물로 입소문이 나서 노인복지회관, 관공서, 교회 등에서 5,000개 이상의 판매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일도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처음 이 일을 시작할 때 10명이 시작했다면 그 중에 현재까지 계속 이 일을 지속하고 있는 사람은 고작 1~2명에 불과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포기하지 않고 버티는 것 그것이 제가 아직까지 살아남은 이유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자성어 중 하나가 ‘불광불급(不狂不及)’입니다. 미치지 않으면 미칠 수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집중하고 몰입해야만 그 일을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적당히 원하면 핑계가 생기고 간절히 원하면 방법이 생긴다’라는 말이 있는데, 일이 뜻하는 바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여도 간절함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한다면 원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대화를 하다 보니 노력은 재능을 뛰어넘는다는 말이 생각난다. 끈기를 가지고 노력과 성실로 살아온 그의 미래가 궁금해진다.

“쇼핑물 시장도 변해가고 있어서 지금은 모바일 쇼호스트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재는 재고 없이 사업을 하고 있지만 10년 후에는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어 판매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판매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여러 소상공인 및 초보창업자들을 위해 도움을 드리는 쇼핑물 학교장으로 활동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적당히 원하면 핑계가 생기고
간절히 원하면 방법이 생긴다’



Park Sungwoo

임대형 민자사업 분야의 미래를 선도하다

(주)HDS자산관리

제대군인이 전체 직원의 절반을 넘어서는, 말 그대로 제대군인에게
안성맞춤인 회사가 있다.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을 국가와 군에서
1차 검증을 해준 소중한 자원으로 여기는 회사를 만났다.

글 양일석 사진 오철민



정재순
상무

김은경
대리

노지혜
차장

송재욱
상무

김정학
팀장



Q. HDS자산관리에 대한 소개를 해 주세요.

노지혜 : 저희 HDS자산관리는 2006년 임대형 민자사업 분야 중 운영사로 참여하기 위해 설립되어 현재 업계의 선두자리에 있는 회사입니다. 임대형 민자사업(BTL)은 국방부나 교육청 등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사업에 참여하여 특수목적법인에서 예산을 선투입하고 건물을 지어 공공기관에 제공하게 되면 지어진 시설에 대해 20년간 시설을 운영관리하게 되는데, 저희 회사의 역할이 바로 시설 운영관리에 있습니다.

정재순 : 저희 회사는 현재 초·중·고 66개 학교, 군부대 관련 10여 개의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사업으로는 아파트, 상가 등의 일반시설을 10여 개 관리하고 있고 전문건설업, 건축종합건설회사로서 다양한 시설공사를 실시하고 있어 안정적이고 미래를 선도할 잠재력을 지닌 회사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Q. 제대군인을 채용하게 된 계기와 군인 출신의 장점을 말씀해 주세요

송재욱 : 저희 회사도 설립 당시에는 4 ~ 5명의 소수인원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BTL사업이 수주가 되면서 시설관리소장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회사 대표님께서 육사 출신의 예비역 대령으로 예편한 분이셔서 처음부터 제대군인들이 우수한 자원이라는 것을 아시고 초기부터 바로 제대군인들을 채용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정재순 : 일반인이 아닌 제대군인들을 채용한 것은 거의 신의 한 수였습니다. 우선 제대군인들은 책임감과 소속감이 강하고 외부업체들과의 유대관계를 잘 유지해 갑니다. 또 회사 적응속도도 빠르고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능력과 위험요소에 대한 예지능력이 탁월한 것이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정학 : 제대군인 출신들은 솔선수범이 몸에 배어 있어 상하 위계질서가 투철하고 동료들 간의 친목이 돈독합니다. 그리고 개인보다 단체를 우선시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자세가 몸에 배어 있고요. 군 경력이 오래될수록 다양한 분야에서 근무한 경험으로 이미 시설관리 업무에 적격화되어 있습니다. 우리 회사 입장에서 보면 제대군인들은 정말 준비된 자원들이죠.



Q. 현재 일하는 제대군인은 몇 명이고 어떤 업무를 맡고 있습니까?

송재욱 : 저희 회사는 현재 경비 및 미화업무 인원 약 30여 명에 대해서는 외주업체 위탁을 주고 있고, 본사 및 현장인원은 총 150명이며 이중 약 80여 명이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입니다. 인원 분포도는 80여 명 중 학교 시설관리소장님들이 약 70%, 학교 번들(Bundle)의 총괄을 맡고 있는 팀장님과 본사 근무인원이 약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행하는 업무는 제대군인이라고 해서 어느 특정 업무 분야를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관리, 시설공사, 회계업무, 대관업무, 주수업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Q. 이 회사를 알게 된 경위와 지원하게 된 동기가 궁금합니다.

김은경 : 국가보훈처 산하의 경기남부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 전담상담사를 배정 받고 1:1 상담을 하며 진로 설정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제대군인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인 HDS자산관리 업체를 추천받았고, 여러모로 검토한 결과 제대군인들이 복무 시절 특기를 살려 제2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고, 능력과 공로를 인정해 주며 안정적인 취업을 통한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데 우수한 회사임을 알게 되어서 지원했습니다.

김정학 : 저는 제대하기 전부터 시설 유지관리 쪽에 관심을 두고 일반 컨설팅 회사에 의뢰를 했는데 이 회사를 소개받았습니다. 이미 일반 컨설팅 회사에서도 HDS자산관리가 제대군인의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입소문이 나서서 추천을 하는 상황입니다.



Q. 전역을 앞둔 제대군인들에게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김은경 : 미리 서둘러서 인생의 2막에 대해 고민을 해보시고 방향설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방향설정 시 학창시절 전공과 군에서의 경력, 내가 관심 있고 잘 할 수 있는 방향 등에 기초하여 해당 분야의 자격증 하나 정도는 현업에 계시면서 취득해 놓는다면 좀 더 빠르게 취업을 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직장의 폭도 더 넓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재순 : 일을 하고 사람을 만나다 보면 마치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평생 할 것 같은 분들을 만납니다. 하지만 군인이든 공무원이든 누구나 은퇴를 하게 되고 요즘 같은 100세 시대에 그 이후의 사회생활을 준비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분야에서 오래 일했다고 하더라도 사회에서 나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역시 자격증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가끔씩 많은 사람을 만나서 조언을 듣고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



(주)HDS자산관리 임대형 민자사업(BTL) 분야에서 건물 /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건설업(토공, 철근, 상하수도), 환경미화사업, 시설경비업, 전기안전관리 대행업 등을 통합하여 최고의 전문업체로 성장·발전하고 있는 2022년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이다.



SMART

스마트한 탄소중립 지구를 위해 한 걸음 앞선 사람들

스마트 에코

바야흐로 녹색의 시대. 가속화되는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로 인해 탄소중립이 불가피한 때이다. 무엇보다 환경을 보호하는 일이 최우선이 됨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코앞까지 닥친 지구의 위기에 대처하는 더욱 스마트한 직업들이 생겨나고 있다.

정리 편집실
참고 한국고용정보원 직업진로정보서「디지털그린직업정보」



지속가능한 환경도시를 구현하다 스마트 그린도시 기획자

탄소중립을 위해 이전 도시를 계획할 때도 '그린'이 빠질 수 없다.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을 위해 생태보전과 기후변화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스마트 기술을 개발하고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활용하여 녹색도시를 계획하는 일을 한다. 지리 정보를 활용해 도시 생물 정보 현황을 공유하기도 하며 도시의 녹색 복원을 위한 총책임자 역할을 한다.

관련 자격 및 전공

최근 스마트도시 관련 학과가 대학에 개설되고 있다. 도시계획, 건축, 조경, 환경계획 등 관련 분야 전공 후 진출할 수 있으며 4차산업혁명 관련 기술 및 정부의 국토도시 분야 정책 등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ECO



for

the

Earth

폐기물 없는 녹색건축 인증을 받다 녹색건축전문가



최근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건축물을 건축하면 녹색건축 및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아야 한다. 공사 중에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와 건설 폐기물을 최소화하며 녹색건축 인증 기준에 적합한 건물을 계획·설계한다. 그린 빌딩에 대한 규제는 강화되고 그린 리모델링을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은 활성화되고 있기에 비전이 있는 일자리 분야이다.

관련 자격 및 전공

건축물의 설계 및 시공을 위해서는 건축환경, 건축설비, 건축공학 등의 전공 지식이 필요하며, 친환경 공간 조성 및 맞춤형 건축물 구축을 위해 환경공학과 소비자 주거학 등을 전공하는 것이 유리하다.

정보 분석으로 지구를 지켜라 환경 빅데이터 전문가



각종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일은 데이터 분석이다. 대기, 수질, 자연 등 환경 관련 지식을 수집해 데이터를 구축하고 다양한 기법으로 분석하여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준다. 축적된 정보를 바탕으로 기후변화를 감지하여 동식물 보호와 지구를 지키는 데 앞장설 수 있다.

관련 자격 및 전공

빅데이터 분석기사 자격증 취득 후 관련 분야로 진출할 수 있다. 환경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분석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업무이기에 통계지식과 데이터 분석을 위한 프로그래밍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정보시스템 개발자,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등의 업무 경력이 유리하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앞장서다 신재생에너지컨설턴트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해 신재생에너지의 공급과 활용, 이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개인 및 기업이 원하는 신재생에너지의 특성과 수요를 예측해 적절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컨설팅하는 일을 한다. 연간 사용하는 에너지량 분석과 기초자료 수집 및 연구 등 신재생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위한 과정에 참여한다.

관련 자격 및 전공

전기전자, 에너지공학을 전공하면 유리하나 특정 전공이 필수는 아니다. 인·허가, 법률 및 금융 관련 정보제공의 역할도 하기 때문에 기술 분야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관련 업계 정책과 규제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 ☎

견주에게는 신뢰를 반려견에게는 사랑을

군대가 좋아서 전역 후 다시 군으로 돌아간 그의 마음에 사랑스러운 강아지가 들어왔다. 십여 마리의 강아지에 둘러싸여 함박웃음을 터뜨리는 애견유치원 '신나게'의 최지운 대표를 만났다.

최지운 예비역 육군 중사, 애견유치원 신나게 대표

글 양일석 사진 오철민

#01

멘티: 애견 관련 분야에 종사하게 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처음 이 일을 시작한 계기가 무엇인가요?

최지운 멘토

저는 부사관 생활을 두 번이나 했습니다.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생활을 했는데 군 생활에 미련이 남아 2년 뒤 다시 들어가 2021년에 전역을 하였습니다. 총 15년이라는 군 생활을 하면서 많은 일을 겪게 되었는데 군 생활 중 정말 힘든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힘든 시기를 다른 곳에 집중하며 극복하고 싶어 강아지를 키우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작은 강아지를 키웠어서 조금 더 손이 많이 가는 대형견을 키우고 싶어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교육을 하면서 재미를 느끼게 되었고 집중적으로 이 업종에 관심을 가지면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02

멘티: 주로 하시는 일과 전망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최지운 멘토

주로 아이들 케어와 교육을 전담으로 하고 있고 보호자들과 소통하면서 우리 아이들의 문제점이나 교육방향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현재 1,500만 명 정도의 국민이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데 애완동물이 아닌 반려동물이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반려라는 말은 인생을 함께한다라는 말이죠.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이 업종은 더 많은 분야로 확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03

멘티: 전망이 좋으면 경쟁도 치열할 텐데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 계십니까?



최지운 멘토

여기 주변만 해도 미용만 따지면 1km 반경에 동물병원을 포함해서 12곳 정도의 가게가 있습니다. 사실 경쟁이 치열하긴 하죠.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은 절대 처음부터 한 군데에 선불리 맡기지 않습니다. 여러 군데를 다녀본 후에 결정을 합니다. 저는 처음 오시는 손님들한테 1대1로 상담을 해 드리며 신뢰를 쌓고 그러다 한 번씩 맡기시면 중간중간 영상을 촬영하여 보내 드립니다. 이후 쪽 맡기시기로 결정하면 픽업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이들을 등원시킵니다. 아이들을 유치원 보내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노력들을 알아주시고 계속 믿고 맡겨주시는 것 같습니다.



#04

멘티: 애견사업을 하는 데 있어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요?



최지운 멘토

애견사업이 다른 사업과 가장 차이가 나는 부분은 동물과는 말이 안 통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교육해도 아이들이 100% 말을 듣지 않는데 강아지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대화가 통하지 않으니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죠. 자칫하면 학대나 방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행동 하나하나를 눈여겨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잘 놀다가도 갑자기 화를 내고 싸우는 경우, 사람을 잘 따르던 아이가 갑자기 사람을 무서워하는 경우 등등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해 동물들은 말을 못하니 행동과 표정을 보고 읽어내야 합니다. 정말 강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매사에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5

멘티: 반려동물 분야의 일을 하는 데 있어 갖춰야 할 역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최지운 멘토

인내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일에 인내심이 필요하겠지만 특히나 동물 상대로 일을 하기 때문에 다른 일보다 더 답답해지는 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짜증도 나고 화도 나겠지만 그것을 동물에게 푸는 게 아니라 참고 이겨내야 멋진 사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6

멘티: 애견미용, 교육 분야에서 일하고자 하는 후배들에게 조언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지운 멘토

자격증을 습득하기 위해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격증 습득하기까지 짧게는 6개월 길면 1년 넘게까지 학원에 다녀야 높은 급수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생각이 없다면 과감하게 포기하고 다른 일을 찾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분야에서 직원으로 일을 하거나 창업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자리 잡기까지는 생각보다 수입이 많지 않습니다. 내가 돈을 벌겠다는 생각보다 내가 그만큼 투자하고 배우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하면 조금 더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



*** 전문가가 추천하는 반려견 관련 자격증**



1. 반려견 스타일리스트

과거 애견 미용사 자격증으로 현재는 반려견 스타일리스트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반려견의 털을 깎거나 염색하는 것은 기본이며 옷이나 액세서리 등으로 치장하는 일도 한다.

2. 반려동물 관리사

인간과 반려견 사이의 정서적 작용을 이해하고 반려견의 행동 상담을 통해 반려견주와 반려견의 올바른 관계형성을 도와주는 직무를 한다.

3. 반려동물 행동교정사

반려동물의 다양한 문제행동의 본질과 원인을 분석, 행동교정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훈련시키는 직무를 한다.





달을 따다 줄까?



UFO를 태우줄까?

한국판 베네치아를 만들어가다

나루

글: 신정숙 사진: 나루 제공

밤이 되면 석촌호수에는 밤하늘을 옮겨놓은 듯 초승달 모양과 UFO 모양의 보트가 형형색색 호수를 수놓는다. 기존 보트와 차별되는 감성적 디자인과 편의기능으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움직이며 SNS를 중심으로 인증샷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 동물 모양 보트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다면 볼 수 없는 광경이다. 호수에 초승달과 UFO를 띄우자는 생각,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해봤을 아이디어로 소비자의 욕구를 이끌어낸 나루를 만나보았다.

NARU



나루는 어떤 회사인가?

디자인과 편의성에 특화된 보트를 제조하고 있다. 주력 제품으로는 비행접시 형상의 UFO보트와 초승달 형상의 문보트가 있다. IoT 기술이 접목된 전동 레저보트로 선체에 LED 조명이 탑재되어 원하는 색상으로 선택이 가능하며 야간에도 운행이 가능하다. 전후좌우, 360도 회전이 가능한 조이스틱 컨트롤러를 이용해 누구나 쉽게 조종할 수 있다. 보트 개발 및 판매뿐 아니라 보트 임대, 체험전용 플랫폼 개발 등으로 사업 분야를 넓혀가고 있으며, 지난해 K-STAR 한국해양수산산업대상에서 레저산업 부문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상을 수상했다.



어떻게 제품을 개발하게 되었는가?

처음에는 관광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안동 월영교에 초승달 모양의 문보트가 떠있으면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데 도움이 되겠다고 판단해 시작하게 되었다. 단조로운 수변 공간을 효과적으로 부각시키고 도시경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2018년 '중소벤처기업부 세대융합 창업캠퍼스'에 선정되어 문보트를 개발하게 되었고 사업화를 위해 창업을 하게 되었다.



사업을 하면서 힘들었던 점은 무엇인가?

첫 판매가 가장 어려웠다. 당시 우리나라의 내수면 시장은 약 40여 년 이상 동물 디자인의 보트가 주류였다. 따라서 새로운 디자인의 문보트는 매우 낯선 제품이었고 이 제품이 과연 시장성이 있는가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정말 많은 전시회, 박람회, 행사 등에 참가하여 제품을 홍보하였다. 특히 'G-FAIR KOREA 2019'에 참가했던 일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G-FAIR KOREA 2019'에서 '올해의 우수 제품상'을 수상하며 기업과 제품을 홍보할 수 있었다. 김포 금빛수호에 문보트 시범운행을 진행하며 처음으로 언론의 주목을 받았고 조금씩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방송에도 나온 걸로 아는데 그만큼 인기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좋은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인가?

익숙하면서도 새로운 것 대중성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강이나 호수 같은 내수면에서 보트를 타고 유람하는 체험은 아주 익숙한 여가 활동으로 누구나 한 번쯤 해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것에 새로운 선택지를 추가했을 뿐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그동안 강이나 호수에서는 볼 수 없었던 '초승달', '비행접시'와 같은 디자인을 접목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의 호기심이나 관심을 끌 수 있었던 것 같다.



창업을 계획하는 분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창업과 관련된 지원사업들이 많이 있다. 창업을 계획하고 있다면 창업 아이템과 관련된 지원사업을 꼭 찾아봐야 한다. 또 각 지역에는 예비창업자들이 도움받을 수 있는 센터나 기관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 나도 창업 초기에는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처음 창업을 할 때에는 대부분 일을 혼자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막막한 기분이 든다. 그럴 때에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나 센터를 방문해 보는 것도 좋다.



나루의 비전과 목표는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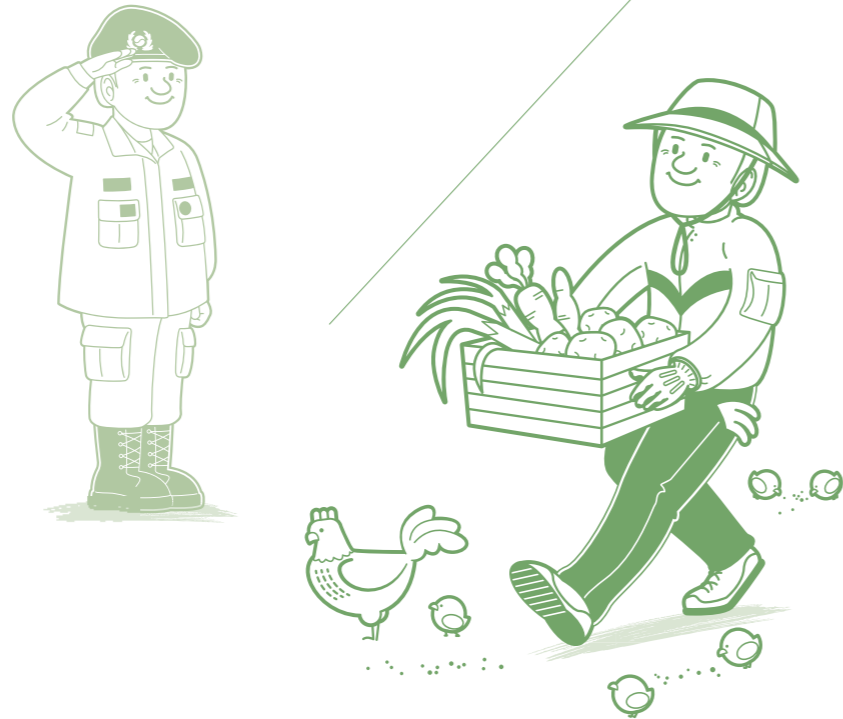
나루는 보트제조기업으로 출발했다. 하지만 단순히 배를 제조하고 판매하며 임대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소비자들에게 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며 새로운 수상 힐링문화를 만들어가고자 한다. ☺



나라를 지키는 군인에서, 농촌을 지키는 청년 농부로

2022년 제대군인 리스타트
챌린지 수기 공모전 우수상

글 이건희 예비역 육군 중사



저는 얼마 전까지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서른 살이 되던 해, 군인이 아닌 청년 농부가 되었습니다. 군의 전자·정보통신 정비 분야에 근무하면서 진급과 장기 복무, 수상과 표창을 받는 등 성취감도 컸습니다. 그 덕분에 군단급 부대에서 인사실무자로 근무하며 동료들에게 인정 받는 간부였습니다.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나라를 지키는 군인으로서 나라에 충성을 다하고 이바지하며, 한 치의 부끄러움 없이 열심히 근무했다고 군인으로서 성취감도 있었고 즐거운 시간이었지만 점점 내가 주체가 되어 에너지를 쏟을 수 있는 일이 하고 싶었습니다. 야간 대학원(정보통신대학원) 시절 ICT 융복합, 빅데이터를 배우면서 이런 기술들이 농업과 융합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농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스마트팜을 알게 되면서 과학적인 농업에 반하였습니다. 약 6개월간 개인 시간과 휴가를 활용하여 안성, 완주, 고흥, 괴산, 청양, 상주, 논산, 문경, 거창, 경산 등에 있는 유명한 선도 농가와 농업기업 등에서 현장 인턴으로 실제로 작물도 키우고 배우며 경험하였습니다. 대규모 농장, 최첨단 스마트팜 단지 등을 돌면서 내가 배운 정보통신과 농업의 융합을 보며 기대하고 설레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제 인생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고 망설였습니다. 너무 행복하고 좋았던 군 생활이었기에 쉽게 전역을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100세 시대라는 시대적인

흐름과 그리고 좀 더 어릴 때 열정을 다시 한번 불어넣을 수 있는 일을 시작하자는 생각으로 농부가 되자고 결심했습니다. 저의 결심과 달리 주변 사람들은 "왜 안정적인 직장을 버리고 사서 고생하려고 하나?"며 말했습니다. 특히 부모님께서 더욱 저를 말리셨습니다. 저의 비전과 5개년 계획을 보여드리고 부모님께 겨우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후회 없는 선택을 하기 위해 군 생활 9년을 끝으로 전역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농업을 준비한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농업에 대해 이론은 물론 체계적으로 배운 적이 없었기에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전역을 준비하면서 알게 된 제대군인지원센터 상담사님께 많은 자문과 도움을 받았습니다. 우선 직업능력개발 교육비를 신청하여 굴착기 자격증을 취득하고, 귀농·귀촌에 대한 오프라인 교육 정보를 받았습니다. 농협중앙회에서 주관하는 청년 농부사관학교를 소개받아 입교하기로 마음먹었고 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입교 후 많은 것들이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하우스에 들어가서 작물들은 잘 자는지, 생육은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할 것이 많았습니다. 군대에서 일찍 일어나고 몸 관리를 했던 습관들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 매일 배운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했습니다. 이것을 블로그에 기록하였고, 저의 스토리를 만들어 저처럼 농업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공유하고 소통하였습니다.

이곳에서 총 세 가지의 경험을 통해 귀농과 농업에 대한 비전에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농업의 기본적인 이해였습니다. 지금까지 농업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공부했다면, 이곳에서 농업과 기술의 연계성을 배웠습니다. 자연의 이치에 따라 커가는 식물을 시설하우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식물의 환경과 생육을 조절하는 형식으로 발전되고 있고, 더 나아가 로봇 등을 이용해서 노동력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작물 생육에 대한 이해와 데이터만 가지고 있다면, 저의 정보통신 기술과 융합시킬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선도 농가 현장실습 교육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농업과 현장에서의 농업은 정말 달랐습니다. 상토부터 물까지 하나하나 농부의 손길이 필요했고, 작은 배수로 작업부터 비닐하우스까지 모든 게 손으로 직접 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포기도 하고 싶었고 생각보다 너무 힘들었지만, 군에서 버티고 이겨냈던 강한 끈기와 부대원들과 작업했던 날들을 떠올리며 열심히 했습니다. 그 노력과 노동의 대가로 과실이 나왔고, 이 결과물들이 얼마나 값지고 어렵게 나왔는지 깊이 느꼈습니다. 세 번째는 비즈니스 플랜입니다. 저는 농업도 하나의 사업으로 생각합니다. 생산부터 가공, CS관리, 판매, 유통까지 모든 영역에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짜임새 있게 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육 커리큘럼 속에서 농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써 내려갔습니다. 오랜 준비 끝에 발표를 하게 되었고, 50명의 예비 청년 농부들 사이에서 당당히 우수 계획서로 채택되어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교육기간 동안 동고동락한 동기생 2명과 함께 농업에 대한 꿈을 이루기 위해 팀을 만들었습니다. '농업도 사업'이라는 비전으로 농업 스타트업팀을 구성하여 경영과 기획, R/D, 홍보와 마케팅 3가지 분야로 나누어 업무를 분담하였고, '농업으로 잘 늙들'이라는 의미를 담아 '될농'이라 이름 지었습니다. 그리고 교육 때 현장실습을 했던 경남 거창으로 최종 귀농지를 선택하였습니다. 저희가 키울 작물인 딸기의 고장이며, 청년 농부에 대한 정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귀농하여 바로 땅을 사지 않고 정부 청년농 육

성정책의 지원을 받아 거창군 청년경영실습 농장 800평을 임대받았습니다. 딸기 재배에 필요한 여러 시설들을 직접 설치했고, 창농준비에 도움이 되는 경험과 데이터를 얻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선도 농가를 찾아 일도 하고 직접 판매도 하며 여러 시행착오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농업 그 자체가 비전'이라고 생각하며 농촌에서 여러 활동들을 겸하고 있습니다. '거창군 귀농·귀촌인 연합회' 사무국 활동을 하면서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해 SNS와 행정업무 등의 업무를 겸하고 있고, 행정안전부 주관 경상남도 청년공동체 '잇다'라는 동아리에서 활동하며 한 옷을 리사이클링하여 농작업복으로 만들어 청년 농부 농가에 전달하고 그것을 홍보영상으로 만드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처음에는 정밀하고 과학적인 농업에 반해 들어오게 된 농촌, 들어와 보니 활력 있고 생기 넘치는 유기적인 움직임들이 많습니다. 무너져가는 집과 사라지는 골목들이 재생되고, 여러 청년공동체들이 옹기종기 모이는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농산물 활성화를 위한 로컬푸드 교육, 농촌 경관을 관광 자원화하는 농촌 기획 등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청년 농부로서 삶을 영위하며 농촌을 살리고 전통을 이어가는 청년 농촌 기획가로서의 꿈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농촌에 뿌리를 내릴 수 있었던 이유는 군대에서 지난 9년간의 밑거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자체 공무원들과도 제가 했던 업무와 유사한 게 많아서 소통도 잘 되고 일을 진행하는 부분에서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매사에 힘든 게 많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는 군인정신으로 이겨내고 있습니다. 막막하고 어려웠던 새로운 도전을 든든하게 지원해준 제대군인지원센터. 저는 지금도 가끔 퇴직하신 저의 담당 상담사님과 연락하며 여러 가지로 인생의 조언을 받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더 많은 제대군인이 제대군인지원센터의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본 수기는 개인의 경험으로 정부의 정책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수기는 지면 관계상 내용이 다소 요약되었습니다.

알아두면 쓸모 있는 2023 달라지는 제도


정리 편집실

신설

 **3개월**
51.3% 감소

우회전 신호등 설치

2023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시범 적용한 지역에 따르면 시행 후 3개월 간 발생한 우회전 보행자 교통사고가 이전보다 약 51.3% 감소하였다고 한다.

 만 0세 아동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 월 **35**만 원

부모급여제도 시행

***부모급여란?**
소득과 관계없이 아이를 낳기만 하면 매월 현금을 지원해주는 제도

연령	2022년		2023년	
	양육수당	영아수당	양육수당	부모급여
만 0세	없음	월 30만 원	없음	월 70만 원
만 1세	월 15만 원	-	없음	월 35만 원
만 2~7세	월 10만 원	없음	월 10만 원	없음

*만 0세의 어린이집 이용 시, 부모급여 금액에서 보육료를 차감한 금액을 부모에게 지급 (만 1세는 부모급여 금액이 보육료보다 작으므로 추가 지급 없음)
*부모급여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 시 적용

폐지

GOOD BYE

한국나이 폐지, 만 나이로 통일



2023년 6월부터 만 나이가 사용된다. 국회에서 민법 개정안과 행정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오는 6월부터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계약 및 법령에 표시된 나이는 모두 만 나이로 간주하게 되었다. 국제적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만 나이가 사용되고 있다.

굿바이 입학금



2023년부터 모든 대학의 입학금 제도가 폐지된다. 2019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국공립대학교부터 단계적으로 입학금을 폐지해 왔는데, 2023년부터는 모든 대학에서 입학금을 걷을 수 없다.

인터넷 익스플로러 서비스 종료



2022년 6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익스플로러에 대한 기술을 이미 지원 종료한 상태이다. 이에 올 8월부터 모든 윈도우에서 인터넷 익스플로러 지원을 중단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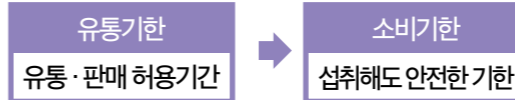


변경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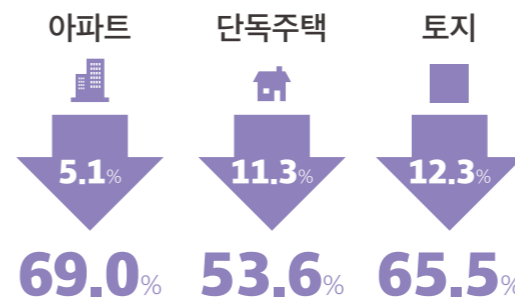


2023년 1월 1일부터 기존의 유통기한제도 대신 소비기한제도가 적용된다. 소비기한제도는 기존의 유통기한과 달리 유통 후 실제로 제품을 섭취할 수 있는 기간을 표시하는 제도로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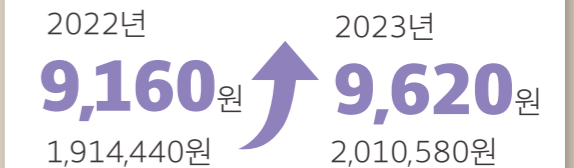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2020년 수준으로

2023년 공시가격 산정 시 적용될 현실화율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낮춰진다. 이에 따라 모든 주택과 토지가 이번 수정 계획에 따른 현실화율 하향 대상이 되며, 유형별로는 기존 계획상 2023년 현실화율 대비 평균적으로 공동주택 -5.1%, 단독주택 -11.3%, 토지 -12.3%가 하락하게 된다.



인상 및 확대

최저임금 약 5% 인상, 월급 200만 원 돌파



최저임금이 2023년 460원 인상되어 시급 9620원이 된다. 평균적으로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한다면 일급은 76960원이고 최저월급은 2010580원이 되어 최저임금 월급이 처음으로 200만 원을 돌파한다.

실업급여 하한액 인상



최저 실업급여 일액 인상과 1일 소정근로시간 산정 방법이 변경된다. 일일 실업급여 지급액은 평균 임금의 60%로 상한과 하한이 정해져 있다. 2023년에 소정근로시간 상한액은 기존 66,000원 그대로 유지되고 하한액은 61,568원으로 인상된다. 2023년 1월 1일 하루라도 근무하고 퇴사하면 인상된 금액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병사 월급 인상



계급	2022년	'23년 인상률	2023년
병장	68만 원	↑ 47%	100만 원
상병	61만 원	↑ 31%	80만 원
일병	55만 원	↑ 24%	68만 원
이병	51만 원	↑ 18%	60만 원

※사회진출지원금 30만 원 별도

2023년도 제대군인 주택 우선공급 및 대부지원 계획



* 신청대상 :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주택 우선공급

신청장소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훈(지)청

신청기간 '23. 1. 2(월) ~ 13(금)(09:00 ~ 18:00)

주택규모 전용면적 85㎡ 이하(분양 및 임대)

대상자 선정방법

• 무주택기간 등 배점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부 작성 → 공급물량이 확보되면 희망여부 파악 → 우선순위에 따라 추천

* 2023년도 주택공급 우선순위부가 확정되기 전에 공급되는 주택은 전년도 우선순위부 적용

신청조건

• 신청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에 따름)

※ 주택소유 여부에 대한 세부적인 판단기준은 2023년도 보훈업무시행지침에서 정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저촉되지 않는 분

※ 특별공급(분양 또는 분양전환공공임대)을 한 차례라도 받지 않은 분(규칙 제55조)

• 국민임대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에 해당되는 분

•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에 해당되는 분

• 통합공공임대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에 해당되는 분

유의사항 1

• 전년도 신청자 중 알선받지 못한 분은 재신청 불필요

※ 분양 → 임대, 임대 → 분양으로 변경 희망 시에는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로 정기 접수기한 내에 변경 신청

• 접수 후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관할 보훈관서에 전화 신고

• 아파트 분양과 임대를 이종으로 신청할 수 없음

• 임대아파트 등 특별공급 지원(동·호수 당첨자 발표) 후 3년이 경과해야 신청 가능

※ 단, 특별공급으로 분양(분양전환공공임대 포함)받은 분은 분양으로 재신청 불가

•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서 분양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제외

유의사항 2

• 「재외국민등록법」 적용 대상자는 주택 우선공급 지원 제외

※ 「해외이주법」 제12조(영주귀국의 신고)에 따라 영주귀국의 신고를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은 경우에만 가능

• 전매행위기간 위반 또는 부정청약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한 경우에는 주택 우선공급 지원 제한

※ 「주택법」 제64조제1항, 제65조제1항

• 주택 우선공급 신청서 제출 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

※ 주택소유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신청인과 세대원의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필수

• 주택 우선공급을 지원받을 경우 아파트 분양 및 주택임차 등의 대부 가능

※ 단, 아파트 분양 또는 주택구입(신축) 대부를 받을 경우 추후 주택 우선순위 배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대부지원 - 나라사랑대출

신청장소/기간 전국 국민은행 · 농협은행 영업지점 / 수시

※ 위탁은행 대부지원이 불가능한 경우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서 직접 대부

대부지원 제외

• 제대군인 대부를 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분

※ 단, 동일대부가 아닌 다른 종류의 대부지원은 가능

• 주택구입(신축), 주택임차, 아파트 분양, 농토구입, 사업 대부 중 2건 이상 상환 중인 분

• 생활안정 대부의 경우 현재 생활안정 대부를 3건 이상 상환 중인 분

• 학자금 대부의 경우 학자금 대출제도를 운용하는 타 기관으로부터 동일학기 학자금 지원을 받았거나 받을 분

대부종류 1

대부종류	대부한도액	연이율	상환기간	담보조건	구비서류
주택신축	4,000 ~ 8,000만 원	2.9%	20년	구입(신축)주택	건축허가서 및 설계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주택구입					매매계약서(검인계약서 포함),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택임차	2,000 ~ 5,200만 원	2.9%	7년	부동산 · 군인연금 · 보증서	확정일자 있는 전세계약서,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아파트 분양	4,000 ~ 8,000만 원	2.9%	20년	분양아파트	분양계약서, 계약금 및 중도금 납부 영수증 등

대부종류 2

대부종류	대부한도액	연이율	상환기간	담보조건	구비서류
생활안정	300만 원	2.9%	3년	부동산 · 군인연금 · 보증서 · 연대보증	
농토구입	3,000만 원	2.9%	3년거치 10년	구입농토	매매계약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사업	2,000만 원	3.9%	7년	부동산 · 군인연금 · 보증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운영 및 소요자금 입증서류 등
학자금	학기당 500만 원	3.9%	5년	부동산 · 군인연금 · 연대보증	등록금 고지서 또는 등록금 납부영수증

유의사항(신청 요건)

• 주택 대부(주택구입(신축), 아파트 분양, 주택임차)는 대부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이어야 함.

※ 대상 주택은 공부상 주거전용 면적이 건물 전용면적의 1/2 이상이어야 함.

※ 주택임차 대부는 임차보증금 범위 내에서 지원

• 생업 대부의 경우

※ 농토구입 대부는 본인과 1년 이상 동거하고 있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지역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분

※ 사업 대부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직접 사업을 운영하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분

※ 생활안정 대부는 재해복구비, 경조비, 의료비 등 가계 지출이 필요한 분(재해복구비는 600만 원까지 지원)

※ 문의사항은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 또는 국가보훈처(☎1577-060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MBTI, 우리 아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글 조수연(주호시담 대표, 상담학 박사)

요즘 많은 사람들이 MBTI를 자신을 대변하는 수단으로 내세웁니다. 한때 유행하는 재밌거리로 생각했는데, 우리 집 아이들도 자신이 해당하는 MBTI의 특징을 말하며 '나는 I유형이어서 혼자 있는 시간이 좋아.', 'P유형이어서 난 새로운 장난감이 많이 필요해.'라며 우리 부부를 당황하게 합니다. 정말 MBTI가 아이들의 성향이나 특성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맞는지, MBTI가 아이들과 소통하는 매개체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모님들이 여러 명 모이면, 자연스럽게 자녀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의 나이가 학령기가 넘어 가면 부모님들의 대화도 자연스럽게 학업적 성취도에 대한 화두가 주를 이룰 때가 많습니다. 자녀가 조금 더 성장을 해서 사춘기가 시작되면, 학업적 대화 주제 이외에도 소통의 어려움을 함께 공감하기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부모님들은 그들에 관한 이야기의 주제는 무엇이었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더 근본적인 것 더 가치 있는 것을 화두로 삼지는 않았을까요?

자녀를 소개할 때, 보통 어떤 표현으로 아이를 소개하고 있으세요?
수학을 잘하고, 영어를 힘들어하는 아이 또는, 회색보다는 핑크색을 좋아하는 아이, 고양이보다는 강아지 같은 느낌의 아이 등등 소개의 방식은 정말 다양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님에게 어떤 표현으로 자신이 소개되길 기대할까요?
한번쯤은 생각해 볼 일인 듯합니다.

“우리 첫째는 책임감이 강하고 야무져요,”
“우리 둘째는 흥이 많고 사랑스러운 아이예요.”

위의 설명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 드는 소개의 표현! 성격은 이렇게 누군가에게 자신의 “자기다움”을 표현해 주는 대표적인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격은 타고난 성향을 표현하기도 하고, 태어난 후 삶을 살아가며 후천적으로 개발된 습관의 방식을 말하기도 합니다.

최근 아이들은 대표적으로 자신을 소개할 때, MBTI라는 성격의 기준을 활용해서 본인을 소개하곤 합니다. 4가지 축의 조합을 통해 자신이 설명되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는 공식이 그들에게는 참 익숙한 것 같습니다. SNS상에서 보면 무료 검사도 있지만, 전문가들은 보통은 공인된 정식 검사를 통해 MBTI 유형을 측정합니다. 원리를 생각해 보면, MBTI는 타고난 선호 경향성을 측정하는 성격유형 검사입니다. 따라서 선호 경향성이 자신의



적응 능력과는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내가 선호하는 성격의 경향성은 내향이지만, 외향적 적응의 태도로 일상생활을 보낼 수 있는 것처럼요.

MBTI 성격유형은 특히 개인의 선호 경향성을 설명하기 때문에, 나이와 상관없이, 대화의 주제와 상관없이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기에 매우 효율적인 매개라고 생각됩니다. 더군다나 요즘 아이들에게는 우리들의 혈액형, 별자리처럼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는 익숙한 설명 지표이기 때문에 부모님들에게도 이 도구의 기본적 정보를 숙지하는 것은 서로의 소통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MBTI는 4가지의 성격의 축을 기준으로 에너지의 방향(외향, 내향)과 정보의 수집(경험, 가치), 중요한 것의 선택과 판단(사고, 감정), 행동양식(인식, 판단)으로 구분되어 각자의 성격의 생김새가 구별됩니다. 다만, MBTI 심리검사는 자기 자신이 검사 문항에 응답하는 자기보고식 검사라서, 자신의 선호 경향성을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사회적 바람직성 등의 영향으로 진짜 선호하는 나의 모양과 다른 결과가 유형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실제 상담 센터에서 심리검사를 진행해 보면,

The Myers-Briggs-Type Indicator

심리검사 결과와 다르게 상담 전문가와 1:1 면담을 하면서 본인의 진짜 성격유형을 제대로 탐색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성격의 생김새를 설명하고 이해하는 다양한 기준과 관점 중 하나로 MBTI를 활용하는 것은 소통에 편의성을 줄 수 있으나 결과에 대한 “결론”이나 “낙인”은 지양해야 합니다.

실제로 동일한 성격유형이라고 하더라도, 삶에서 선호 경향성과 다르게, 삶의 순간순간 당면하는 더 중요한 가치와 맥락, 의미들이 우리의 성격을 넘어선 책임과 포용으로 적응해 내는 시간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MBTI 성격을 통해 서로의 선호 경향성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특별히 더 익숙하게 제공했던 우리 집 문화와 방식은 없었는지, 자녀의 성격과 나의 성격의 차이로 그들이 그 차이를 즐겁게, 때론 버겁게 적응하고 있지는 않은지 “서로의 안부”를 묻는 대화의 실마리로 활용된다면 충분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성격의 생김새에 대한 정의와 이해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성격의 생김새와 다른 시도와 견딤, 해낸 시간들을 서로가 따뜻하게 목격해 주며 소중한 발견을 시작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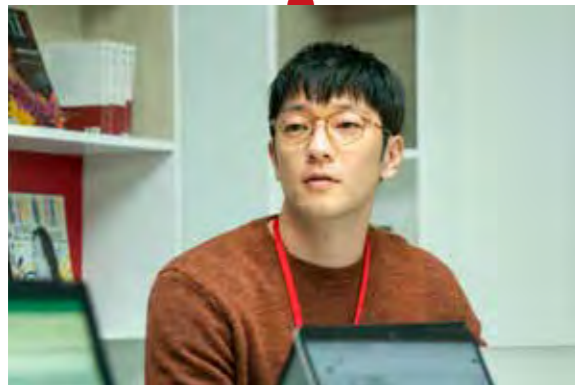
서로가 너무 닮아서 이해되고, 또 매우 달라서 필요했던 이해의 시간들을 소중히 살펴보는 것이 진짜 성격의 생김새를 알아가는 더 깊은 발견이 될 것입니다. 아이들은 부모에게 어떤 모습으로 발견되고 설명되고 싶었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목격해 주는 부모가 되고 있었는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성격의 기준으로 놓치고 있었을지 모르는 아이들의 소중한 순간을 함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

정리 편집실



SON SEOKGU

출처 셋별당엔터테인먼트



출처 CJ ENM

칼럼나스트로, 작가로써 출간하는
매력을 뽐내다

배우 손석구

드라마나 영화를 보며 우리는 상상한다.
화려한 미디어 속 주인공이 나라면 어떨까 하고
그런 이들을 위해 배우의 필모그래피를 통해
평소 알고는 있었지만 제대로 알지 못했던, 또는
알려지지 않은 생소한 직업들을 만나본다.

사랑도 일도 섬세한 칼럼니스트

영화 <연애 빠진 로맨스>

대한민국 | 2021년 | 감독 정가영 / 각본 정가영, 왕혜지
| 칼럼니스트 박우리 역

박우리는 소설가를 꿈꾸지만 등단하지 못하고 잡지사의 칼럼
니스트로 일한다. 편집장의 강요로 19금 칼럼을 쓰기 위해 가
입한 데이팅 앱에서 여자 주인공 함자영과 만나 서로에 대해
알아가며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다.

책의 기둥을 만드는 칼럼니스트

칼럼(Column)이란 라틴어 칼룸나(Columna)에서 유래된 말
로 그리스·로마 건축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원형기둥을 뜻
하는 단어다. 오늘날의 신문이나 잡지에 실리는 특별기사는

기둥모양으로 위아래로 길게 실리기에 그 모습이 흡사해 칼럼
이라 불렀다. 칼럼니스트는 신문지상에 사설 이외에 특정란을
담당해 정기적으로 집필하는 기자 또는 평론가를 뜻하기도 한
다. 이처럼 신문이나 잡지, 뉴스 포털 등에서 특정한 주제에 대
해 적절한 사례와 근거를 뒷받침하여 독자들에게 자신의 견해
와 생각을 공유한다. 칼럼니스트가 낯선 직업은 아니다. 주요
미식회의 맛칼럼니스트 황교익, 마녀사냥의 연애칼럼니스트
곽정은 등 칼럼니스트는 미디어 속에서도 쉽게 만날 수 있
으며 문학, 음식, 영화 등 다양한 분야로 나누어져 있다.

칼럼니스트가 되기 위해선

칼럼니스트는 주로 잡지나 신문사가 다루는 분야의 일을 취
재해서 기사를 쓰거나 필자에게 원고청탁을 받아 글을 작성
한다. 글을 업으로 삼는 직업인 만큼 평소 글을 읽는 습관이
중요하며 관심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필요하다. 책이나 신
문, 잡지 등 다양한 글을 접하고 자주 읽으며 나만의 글로 풀어
내는 훈련이 필요하다. 또한 나의 기고력과 경력에 따라 취업
이 결정되거나 계약 건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강연, 공모전과
같은 다양한 경험을 쌓는 것은 필수다. 나의 경력사항이 되는
책 출간, 칼럼 기고를 위해 기획안이나 제안서 등을 신문사, 출
판사, 잡지사에 보내며 기획의 문을 두드려보는 것도 좋다.

'막말 감독'과 '기부천사' 사이

드라마 <멜로가 체질>

대한민국 | 2019년 | 연출 이병헌, 김혜영 / 극본 이병헌, 김영영
| CF감독 상수 역

동갑내기 서른 살 세 여자의 일과 연애에 대한 고민을 서로
털어놓으며 위로받고 성장해 나가는 스토리다. 손석구 배우



출처 CJ ENM



출처 JTBC '멜로가 체질'

가 맡은 CF감독 상수 역은 현장에서 막말을 서슴지 않는 안
하 무인이지만 밖에서는 버는 족족 보육원에 기부해 기부천
사 김 회장으로 불리는 예측불가 캐릭터다.

15초의 미학을 완성하는 CF감독

영상 콘텐츠의 시대, 유튜브나 TV 같은 미디어는 때려야 땔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그런 미디어 속 감초 같은 역할을 하는
광고, 흔히 'CF'라 부른다. 영상이 나오기 전 텔레비전 광고도
필름으로 만들었기에 'Commercial Film'의 약자로 불리기 시작
했다. 이러한 예능인지 광고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만큼 흥미
로운 콘텐츠를 만드는 직업이 CF감독이다. 광고 한 편을 만들
기 위해 CF감독은 광고주의 의도와 목표에 맞게 제작방향을
설정 후 광고 문안, 카피라이터와 협의, 광고의 영상 및 그래
픽 제작 등 광고 제작에 관련된 전반적인 일을 감독한다. 광고
가 완성되었다고 해서 끝난 것은 아니다. 제작주와 시사회를
갖고 추가사항이나 변경 사항 등을 확인하고 공중파에 방송
될 경우 방송심의의를 의뢰해 경우에 따라 수정해야 한다.

CF감독이 되기 위해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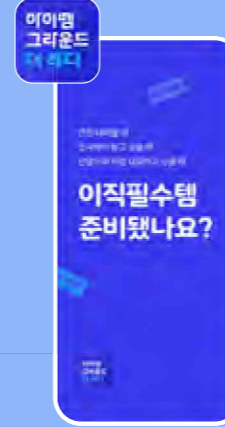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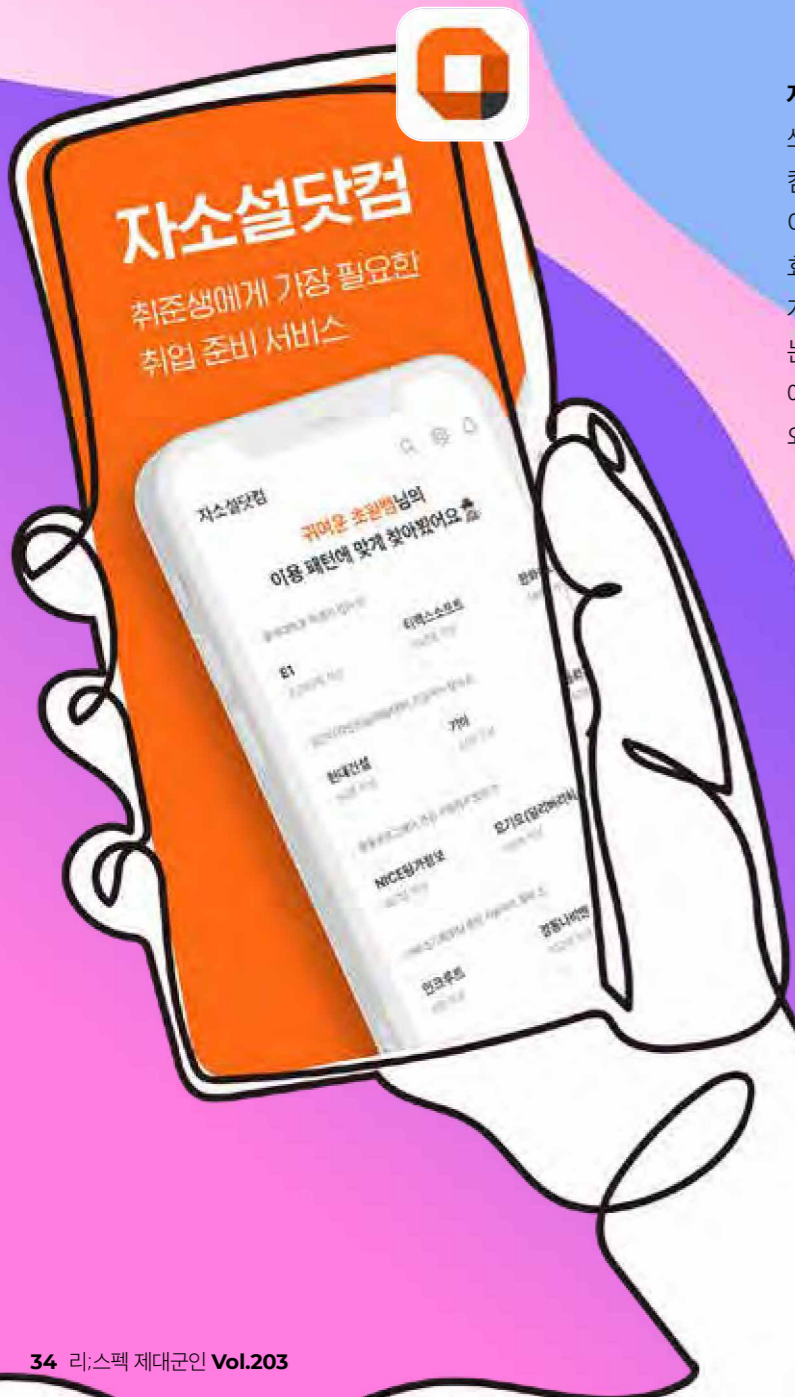
소비욕구 증가에 따른 기업의 마케팅 활동 촉진, 새로운 매체
의 출현, 방송프로그램의 세분화 등으로 광고시장이 확대되
어 전망이 밝다. CF감독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미적 감각이 필
수다. SBS, KBS 등 다양한 아카데미를 통해 영상 기술을 익히
며 나만의 아이덴티티가 녹아든 15초에서 30초의 짧은 영상
을 만들어 보자. 또 미술, 문학 등 인문학 책을 읽으며 미적 감
각을 향상시키고 아이디어의 원천을 얻는 것도 좋다. 최근 한
국의 영상 콘텐츠가 해외로 진출하는 경우가 많아 외국어 능
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며 공모전과 같은 다양한 경험을 쌓
으며 차별화된 노하우를 가지는 것을 추천한다. 66

인생 2막은 지금부터! 취업준비, 애플리케이션으로 시작하자

새로운 미래를 꿈꾸며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이 애플리케이션들을 주목하자. 취업 정보 제공부터 자기소개서 첨삭까지, 스마트폰만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면접 준비도 할 수 있다. 혼자라는 생각에 막막했던 취업 준비, 이제는 애플리케이션 사용자들과 정보도 공유하고 서로 소통하며 의지를 다져보자.

자소설닷컴

쓰면 쓸수록 어려운 것이 자기소개서이다. 자소설닷컴은 이력서, 경력기술서 가이드 등 취업 관련 빅데이터와 채용 공고를 빠르게 업데이트해 주어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도와준다. 공고별 자기소개서 항목을 모두 제공해 주기에 관심 기업에 딱 맞는 양식의 서류를 준비할 수 있다. 기업별 커뮤니티에서 정보를 공유할 수도 있으니 취업준비, 더 이상 외롭지 않다.



아이엠그라운드 더 레디

서류 합격! 이제는 면접이다. 인사담당자와의 대화, 면접 코칭이 담긴 분석 리포트까지 받을 수 있는 든든한 취직 서포터이다. 메시지를 통해 헤드헌터와 담당자에게 궁금한 점을 물어보며 면접을 준비할 수 있다. 모의 면접 후 받아볼 수 있는 피드백을 바탕으로 수정·보완해 더욱 당당하고 활기차게 면접장으로 들어가보자.



슈퍼루키

검증된 스타트업 기업이나 외국계 취업을 원한다면 이 앱에 주목하라. 채용공고도 제공하고 필수 커리어 교육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슈퍼루키'를 통해 첫걸음을 내딛어보자. 다양한 공모전, 프로젝트 관련 소식, 선배들의 에피소드가 담긴 콘텐츠도 제공하니 더욱 다채로운 취업 관련 정보를 얻고 싶을 때 사용하기 좋은 애플리케이션이다.



산타토익

취업준비의 기본 스펙이 된 토익, 이제는 AI로 공부하자. RC, LC 문제풀이와 동영상 강의, 단어까지, 토익의 모든 것을 한 번에 학습할 수 있는 올인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무료 레벨 테스트로 짧은 시간 안에 점수를 예측하고 파트별 취약점을 분석해 맞춤 학습을 추천해준다. 최신 경향을 반영하여 토익 빅데이터를 분석한 AI가 제공하는 8,000개의 문제, 1,000개의 단어로 공부한다면 취업은 시간 문제!



게임잡

게임을 사랑한다면, 취업으로 진정한 덕업일치를 이루자. 게임업계 및 유명 게임회사의 공고부터 정규직, 병역특례, 프리랜서 등 채용형태별 정보를 제공한다. 게임잡의 커뮤니티에서는 현직자가 답해주는 취업 관련 질문과 면접 후기 등이 있어 더욱 생생한 소통을 나눌 수 있다. 소규모 프로젝트에 필요한 팀원을 구한다면 프리랜서 모집에 용이하도록 앱에 포트폴리오를 등록해두자. 기업의 러브콜을 먼저 받게 될지도 모른다. 📱

2023년 희망찬 출발! 모두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기분 좋은 한 해가 되길~

신비한 해무가 덮인 문무대왕릉 너머 떠오르는 새해 첫 태양은 그야말로 장관이다. 죽어서도 나라를 지키고자 했던 문무대왕의 염원이 살아있는 세계 최초의 수중릉, 경주 문무대왕릉에서 특별한 새해 첫 아침을 열어본다.

글 신정숙 사진 경주시청 제공

모두의 염원을 담은 첫해를 마주한다. 갈매기가 대왕을 수호하는 듯 힘찬 날갯짓을 하고 피어오르는 해무를 헤치고 붉은 태양이 떠오른다. 경주 문무대왕면 봉길리 앞바다에 묵묵히 자리하고 있는 바위섬, 이곳이 문무대왕릉이다. 문무대왕릉은 우리나라 최초의 수중릉인 동시에 세계에서 유일한 수중릉이다. 왜 하필 바다 한가운데에 자리하고 있을까. 문무왕은 동해 가까이 있는 왜적의 침입을 항상 경계했기에 죽으면 동해바다에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겼다. 죽어서라도 용이 되어 나라를 지키려 한 문무대왕의 호국정신이 담겨있는 이곳에서의 일출은 특별한 의미로 다가온다.

📍문무대왕릉 경북 경주시양북면봉길리 26



1

- 1_ 빛나는 경주_살롱헤리티지
- 2_ 교촌한옥마을 최부자댁
- 3_ 월정교 야경



2

국내 최초 미디어 세계유산홍보관, 살롱헤리티지

세계의 문화유산을 한곳에서 만날 수 있는 곳이 경주에 있다. 경주엑스포대공원에 위치한 살롱헤리티지는 전 세계에 분포한 세계문화유산과 세계유산도시들을 첨단기술로 만날 수 있는 미디어 홍보관이다. 근대 유럽의 소통공간이었던 '살롱'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진 살롱헤리티지에 들어서면 제일 먼저 세계유산 서재를 만난다. 세계유산이 소개된 화보집과 세계유산 관련 서적이 비치되어 있다. 이 고전적인 공간에서 미디어 디스플레이를 이용하여 퀴즈를 풀면서 세계유산에 대한 지식을 쌓을 수 있고, 거대한 벽면 스크린에서 메타버스 이미지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이 상영되어 아이들과 관람하기 좋다. 하이라이트는 미디어터널이다. 약 10m 길이의 미디어터널은 세계문화유산을 아름다운 빛으로 구현하여 특별한 경험을 선사한다.

☉ **살롱헤리티지** 경북 경주시 경감로 614
경주엑스포대공원 내 세계유산홍보관

배우고 노닐며 운치를 즐기다, 교촌한옥마을

한국인이라면 한번쯤 들어봤을 경주 최부자집. 바로 그 경주 최부자집이 있는 마을이 교촌마을이다. 교촌마을은 천년을 이어온 배움터이다. 신라시대 국학, 고려시대 향학, 조선시대 향교가 이곳에 자리해 교촌마을이라 불린다. 이곳은 한국판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정신이 싹튼 곳이기도 하다. 최부자 가문은 주변 100리 안에 굶어죽는 사람이 없게 하고 만석



3

이상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등 배품의 미덕을 실천했다. 교촌마을은 경주향교, 최부자댁 등의 볼거리와 더불어 체험의 메카로 통한다. 한옥마을 내의 한옥들은 대부분 체험장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손누비체험, 전통의상체험, 도자기체험, 떡메치기 체험 등이 진행된다. 또 교동범주, 교리김밥, 한복체험 등 볼거리, 즐길 거리가 많아 여행의 재미를 살려준다.

☉ **교촌한옥마을 최부자댁** 경북 경주시 교촌안길 19-21

신라 천년의 밤에 빠져들다, 월정교

해 질 녘이 되면 약속이나 한 듯 사람들이 월정교로 모여든다. 월정교는 삼국사기에서 기록을 찾을 수 있을 만큼 오래된 천년의 다리이다. 교량은 소실되어 흔적만 있었는데 고증을 거쳐 현재의 모습으로 복원되었다. 신라시대 월성과 남쪽 지역을 잇는 통로였던 월정교는 원효대사와 요석공주의 사랑이야기가 얽힌 러브로드이기도 하다. 교각 자체도 멋스럽지만 양쪽 끝에 문루가 위엄있게 자리해 보는 순간 압도된다. 2층 문루에 오르면 월정교 홍보관이 있고 월정교 일대 전경이 한눈에 들어온다. 현판도 볼거리인데 남쪽 현판은 신라 명필인 김생의 글씨를, 북쪽 현판은 신라 대학자인 최치원의 글씨를 집자한 것이다. 밤의 월정교는 화려한 매력으로 빛난다. 빛을 품은 월정교의 모습이 비치는 남천에 앉아 신라 천년의 아름다움에 취해보면 어떨까. ☺

☉ **월정교** 경북 경주시 교동 274



동계훈련, 이게 그 핫팩이야?

각색/그림 최승춘
icartoonist@naver.com

2002년 초
이 답답한 김 중위야. 아직도 트렌드를 모르면 어떡하니?

클릭 몇 번이면 물건을 살 수 있는 시대가 왔잖아!
하하!

들어나 봤나? 온라인 쇼핑몰!
응?

난 이번 동계훈련에 필요한 핫팩을 온라인 쇼핑몰에서 간단하게 구매했지.

이젠 편하게 손가락 하나로 까딱하면 된다고 알겠어?
크응...

요즘 누가 PX가냐?
힘!

다음날
이게 뭐야? 야! 통신소대장!
그... 그제.

상의에 놓어야 할 핫팩이 용량과 성능이 절반밖에 안 되잖아?!
야!
배리!

이렇게 발에 놓는 조그만 거로 어찌자는 거야?!
하!

죄... 죄송합니다.

병사들이 이걸로 어떻게 추위를 견디냐고! 용도에 맞는 제품을 구매해야지?!

어쩐지 싸더라니...
이구!
뭐? 그걸 말이라고...!

얼른 제대로 조치해!
가서갔다!
광!

이봐! 통신소대장님.
스응...

훈련준비는 일일이 눈으로 확인하고 다니면서 하는 거야.

손가락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발로하는 거지. 알았어?
고응.

그리고 남은 핫팩 좀 나눠줄 테니 그런 고마운 표정은 짓지 말라고...
컹!

아참! 잠깐!
나 PX 갈 건데 뭐 필요한 것 있으면 사다 줘?

야!
하하!
퐁!

직접 보고, 만지고, 그리고 다시 확인하는 것! 그것이 준비의 기본!
-예비역 육군 소령 김기환-

행복한 명절을 위한 스트레칭 솔루션

도움 대구 만족정형외과 운동치료실

그리웠던 가족과 만나는 기쁨의 명절, 설날.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고 양손 가득 준비한 선물을 주고받느라 행복하다. 그러나 귀성길 장거리 운전으로 허리는 빠근하고 명절 음식 장만으로 어깨와 손목이 저러온다. 일상으로 돌아가기 전,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짧은 스트레칭으로 명절후유증을 해소해보자.

귀성길 장시간 운전 후 스트레칭



온몸 근육 풀어주기

- ① 다리를 양쪽으로 넓게 벌려 선다.
- ② 한쪽 발끝을 바깥쪽으로 향하게 하고 무릎을 굽혀 직각을 만든다.
- ③ 굽힌 다리 쪽의 팔꿈치로 허벅지를 지지하고 반대편 팔을 펴서 들어 올려 옆구리 스트레칭을 한다.
- ④ 방향을 바꾸어 반복한다.



하반신 혈액순환 도와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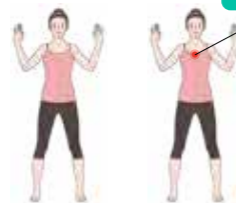
- ① 다리를 어깨너비보다 넓게 벌리고 오른쪽 발은 바깥쪽으로, 왼쪽 발은 정면을 보게 만든다. 양팔은 수평으로 벌리고 시선은 정면을 본다.
- ② 골반이 틀어지지 않게 고정하고 양팔을 쭉 뻗은 채 오른쪽으로 몸을 기울여 발목을 터치한다.
- ③ 발의 방향을 바꾸어 왼쪽으로 시행한다.

명절음식 장만 후 스트레칭



빠근한 어깨 풀어주기

- ① 양발을 어깨너비로 벌리고 척추를 바로 편 후 오른팔의 팔꿈치를 구부려 목 뒤에 놓고 왼손으로 오른팔 팔꿈치를 잡는다.
- ② 왼손으로 오른팔 팔꿈치를 5초간 지그시 눌러준다.
- ③ 팔을 바꿔서 반복한다.



굽은 자세 펴주기

- ① 양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바로 선 후 팔을 벌려 어깨높이로 들어올린 다음 팔꿈치를 90도로 접어올린다.
- ② 양팔을 최대한 뒤로 젖힌 상태에서 10초간 유지한다. 이때 목이 앞으로 빠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가슴과 등이 퍼지는 느낌으로



저린 손목 풀어주기

- ① 몸을 바로 세우고 어깨넓이로 발을 벌린 후 합장하듯 양 손바닥을 마주 댄다.
- ② 이 상태에서 손목을 틀어 손끝이 아래로 향하도록 한다.
- ③ 손목이 시원하게 스트레칭되도록 5~10초간 손바닥을 꼭 눌러준다.

독마퀴즈 QUIZ

'라이프 체인저' 코너에서 주인공이 현재 도전하고 있는 직업은 무엇인가?

- ① 홈쇼핑 쇼호스트 ② 모바일 쇼호스트 ③ 홈쇼핑 MD ④ 브랜드 쇼핑몰 관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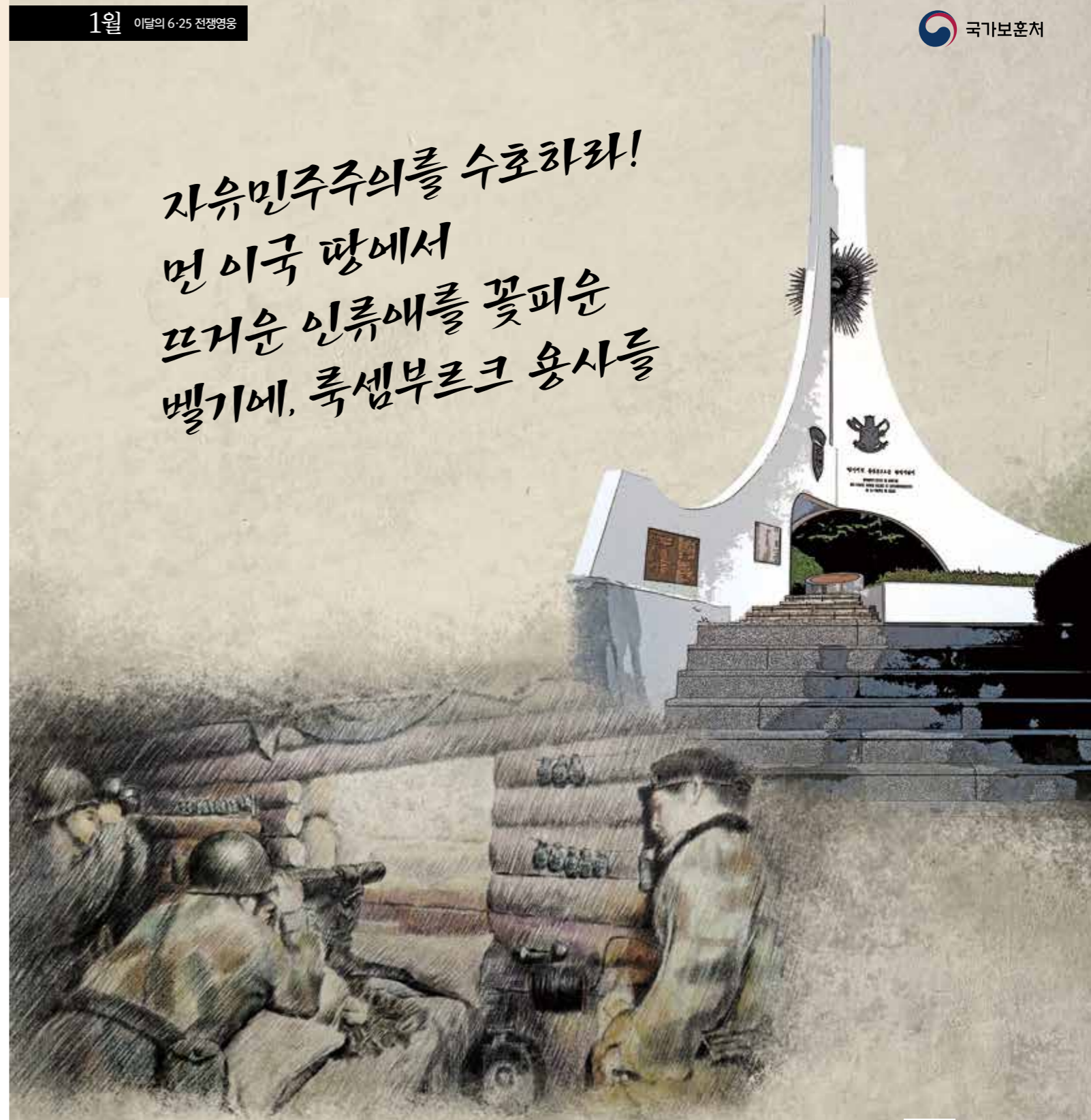
※ 1월 20일까지 정답과 이름, 주소, 연락처를 리:스펙 제대군인 담당자 이메일(seung29@korea.kr)로 보내주시거나 웹진(http://vnet-magazine.kr)에서 직접 참여해주세요. (당첨 결과 문자 통지)

2022년 12월호 독자퀴즈 당첨자

- | | |
|------------|------------|
| 김영미(대전 유성) | 이창률(서울 구로) |
| 김지혜(인천 부평) | 이한기(경북 예천) |
| 박충근(서울 강서) | 한대중(충남 홍성) |

※ 당첨되신 분께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소정의 상금을 보내드립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라!
 먼 미국 땅에서
 뜨거운 인류애를 꽃피운
 벨기에, 룩셈부르크 용사들



벨기에 룩셈부르크 대대

※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벨기에 룩셈부르크 대대는 벨기에군 700명, 룩셈부르크군 48명으로 통합부대를 편성해 6·25전쟁에 참전했다. 1951년 1월 31일 부산 상륙 후 미국 제3사단에 배속되어 임진강 북쪽 금굴산 전투에서 중공군 공세를 저지하며 영국군이 철수로를 확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을 뿐 아니라 강원도 철원의 학당리 전투 등에서 많은 전공을 세웠다. 특히, 1953년 2월 26일부터 4월 21일까지 '철의 삼각지대' 내 잣골전투(지금의 철원)에서 55일 연속으로 진지를 지키며 적의 남하를 저지하는 혁혁한 공을 세워 지금까지 벨기에와 룩셈부르크가 한국에서 거둔 가장 값진 승전으로 기억되고 있다. 정부는 경기도 동두천시에 벨기에 룩셈부르크 대대 참전 기념비를 세워 전공을 기리고 있으며,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동두천시지회는 매년 11월 11일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을 계기로 추모식을 열어 숭고한 희생에 경의를 표하고 있다.